

# 朝鮮通信使 및 日本使臣을 통해서 본 韓·日간의 飲食文化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宴會를 통해서 본 朝鮮王朝의 壽杯床·果盤·阿架床 考<sup>+</sup>

金 尙 寶

대전보건대학 전통조리과  
(1999년 3월 23일 접수)

## The Comparison of Food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Korean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Japanese Envoys, Agasang · Subaesang · Kwaban of the Choson Dynasty through the Dinner Party in Thusima Island<sup>+</sup>

Sang-bo, Kim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Received March 23, 1999)

### Abstract

The following demonstrates similaritie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food culture. The facts have been discove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cords kept by Korean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Japanese Envoys.

- Both countries used the numbers 7, 5, 3, in food treats.
- Both demonstrated Da do(茶道) style during banquet.
- Japanese Na-ra-dae(奈良臺) is similar to Korean Sue-bae-sang(壽杯床).
- Both countries had a Kan-ban (decorative table, 看盤) and Mi-soo (wine and someatables, 味數) during banquet.
- The composition of the table may be the same for both Korean Geo-sick-oh-kwa-sang and Japanese 3Jeup(soups) 15Che(dishes).
- Agasang is a Kan-ban (decorative table) of Choson's Da-do(茶道) style.

### I. 서론

저자는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이 한·일 양국으로의 파견에 따라 조선왕조 전기에서 증기를 통하여 어떻게 음식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는가를 前報를 통하여 밝히려 한다(김a-c). 본보에서는 前報를 기초로 하여,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에게 제공된 접대문화를 통

해서, 간반(看盤)·미수(味數)·상화(床花) 등의 연회 음식과 의례, 상차림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일간의 공통되고 있는 음식문화를 비교하고, 일본정부가 조선통신사에게 접대한 접대문화를 통하여 조선왕조의 연회 상차림의 일부분을 유추함으로써, 당시의 교류의 현황을 究明하고자 한다.

<sup>+</sup>本 論文은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의 石毛直道 관장님과, 滋賀縣立大學의 鄭大聲교수님의 지극하신 도움에 힘입어 완성되었습니다. 본 지면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II.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을 통해서 본 한·일간의 飲食文化의 비교

### 1. 상차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7·5·3

#### 1) 조선왕조

조선왕조가 일본사신을 접대할 때에 제공했던 일상식의 하나인 조반(朝飯)·석반(夕飯)·주점심(晝點心)의 상차림은 7첩상, 5첩상, 3첩상이었다. 여기에서의 “○첩”이란, 장류(醬類)를 제외한 음식의 총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7첩상이란, 장을 제외한 밥[飯]·국(羹)·조치(助致)·젓갈[醃]·자반[佐飯]·적(炙)·침채(沈菜), 7종류를 차린 상차림이었다.

거의 조선조 全期에 걸쳐서 상류계층의 일상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이 7첩상, 5첩상, 3첩상이 문헌적으로 초출(初出)된 것은 신숙주(申叔舟)가 저술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로서, 신숙주는 이 『해동제국기』를 성종 2년(1471)에 찬진(撰進)하였으나 『해동제국기』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은, 세종25년(1443)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체험인 것은 물론이다(김a, 339-362).

실제로 성종은 신숙주에게 해동제국(海東諸國)<sup>1)</sup>의 조빙(朝聘)·왕래(往來)·관곡(館穀)<sup>2)</sup>·예접(禮接)에 대한 구례(舊禮)를 찬술해 올 것을 명함으로서, 완성된 것이 『해동제국기』이기 때문에 『해동제국기』의 내용은 성종 2년 당시의 구례인 조선조 초기 또는 고려말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당시의 사신 접대 문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신숙주, 『해동제국기』).

조선왕조에서의 7첩상·5첩상·3첩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헌적 종출(終出)은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그 당시 상류 귀족층의 일상식 중의 하나로 기록된 이들 상차림은 궁중에서 최고의 내빈(內賓)에게 5器 또는 7器를 제공하고 있었다. 5器·7器란 장류를 제외한 5종류·7종류의 음식을 차렸음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 前期 『해동제국기』에서 보이고 있는 5첩상·7첩상과 동일하다. 즉 조선조에서는 3첩·5첩·7첩이라는 말도 썼으나 3器·5器·7器로도 상차림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 2) 일본

1300년대부터 1700년대 말까지 거의 조선조 全期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일상식 상차림에서의 7·5·3이란 숫자는, 일본의 경우 일상식이 아니라 연회식에서 채택되고 있다. 무로마찌[室町, 1338-1573]시대에 완성된 본선요리(本膳料理)라고도 지칭되고 있는 753膳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로마찌 시대에 무가의례와 함께

발달한 본선요리는 安土桃山(1574-1602)시대를 거치면서, 보이기 위한 간반(看盤)용 요리로서 지극히 의식화된 극단적인 발달을 보게 되었고(熊倉a, 194-195), 이후 에도[江戸, 1603-1867]시대 때의 조선통신사 접대에서는 간반용(看盤用)과 식사용(食事用)으로 나타나고 있다(김c, 448-458).

7종류의 음식을 차린 반(盤), 5종류의 음식을 차린 반(盤), 3종류의 음식을 차린 반(盤)을 시계열로 점진적으로 배선하게되는 753膳에 대하여, 1636년 황호는 『동사록(東槎錄)』에서, 특히 처음에 나오는 7그릇이 담긴 반은, 물고기 또는 채소를 가늘게 썰어 높이 쾰 것이 마치 우리 나라의 과반(果盤)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반(果盤)이란 조선왕조에서 吉禮에 속하는 영접(迎接)·가례(嘉禮)·진찬(進饌) 등에 배선되는 상차림으로, 영접식에서는 다례과반(茶禮果盤), 가례에서는 과반(果盤)이란 명칭으로 배선되고 있다(金d, 89, 172).

다례과반(茶禮果盤)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왕조에서 연회 때에 올렸던 과반은 차[茶]를 위한 다도(茶道)와 결합된 연회용 음식이었다. 이 다도와 결합된 연회용 음식인 과반의 상차림이, 조선통신사에게 연회 때에 올렸던 7그릇이 담긴 반의 상차림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의 753膳은 다도(茶道)와 결합된 本膳料理이며(熊倉a, 194-195), 본선요리에서 처음에 나오는 7그릇이 담긴 반(盤)이, 조선왕조 연회 때에 茶를 위한 茶道와 결합된 과반(果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은, 한·일 두 나라의 그 당시 연회 모습의 공통점을 나타낸 것으로, 다만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에 전성하였던 불교가 지나가고 유교를 국교로 하던 시기이고, 일본은 국교가 여전히 불교였다고 하는 점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회 모습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왕조의 연회는 여전히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채로 고려의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다.

### 2. 茶道와 결합된 宴會 飲食과 儀禮

#### 1) 고려왕조

고려 연회의 대표는 팔관회와 연등회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의 태조(太祖)는 고려를 세우면서 백성들이 어지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라의 제도를 따랐다(『고려사절요 제1권』). 팔관

1) 海東諸國 : 日本을 지칭.

2) 館穀 :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館舍와 飲食.

<표 1> 연등회와 팔관회 연회의 구성

	연등회(仲春, 2월 15일 <sup>①</sup> )	팔관회(仲冬, 11월 15일)
小會日	康安殿 : 잡기·음악·춤 奉恩寺 : 先祖의 眞殿에 참배	宣仁殿 : 大會日의 것을 연습 法王寺 : 先祖의 眞殿에 참배
大會日	康安殿 進茶와 果盤 헌수(獻壽) 進饌, 進花, 頒賜(酒·花·封藥·果), 잡기, 춤, 음악	宣仁殿 進茶와 果盤, 進茶食, 獻壽, 進饌, 進花, 頒賜(酒·花·封藥·果), 잡기, 음악

① 2월 15일로 하였으나 明宗때에 이르러 1월 15일로 됨.

회와 연등회 역시 신라의 제도를 이은 것으로, 고려의 태조가 훈요십조(訓要十條) 제6조에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영(天靈)·오악(五嶽)·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회일(會日)에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겼으니 마땅히 행할 것이다.”라고 훈요를 기술한 바와 같이(『고려사절요 제1권』), 고려조에서의 팔관회와 연등회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를 수호하고 결속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신라에 이어 불교가 국교이었던 고려로서는 민심의 수습 차원에서 신라의 제도를 따랐으리라고 본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는 행사로서의 팔관회와 연등회에서의 불교적인 두 연회의 성격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팔관회이든 연등회 또는 어떤 연회이든 불교를 국교로 하였던 고려 시대의 연회는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이 공통된 연회의 짜임은 채붕<sup>3)</sup>(綵棚, 채색누각)의 가설, 윤등(輪燈), 향등(香燈), 진다(進茶)와 과반(果盤), 헌수(獻壽), 진화(進花), 잡기[百戲]<sup>4)</sup>, 음악[奏樂] 등이다(『고려사절요』). 다시 말하면 불교적 격식의 일정한 틀 속에서 모든 연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 불교적 격식의 틀안에 천영·오악·명산을 섬기는 팔관회와 부처님을 섬기는 연등회의 연회는 존재하였다.

그러면 왜 香燈·進茶·進花 등의 일정한 격식이 팔관회나 연등회 등의 연회에서 구성 요소가 되었을까를 알아 보기로 한다.

수미산(須彌山)<sup>5)</sup> 위에 정좌한 부처님의 無言說法을 접하면서 구도자는 불국정도의 범회장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구도자는 아래와 같은 계승을 외우면서 성불이 보장되어 있는 불국정도의 일원이 된다.

원하옵건대 여기에 바치는 쫄이 온누리에 퍼져  
사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케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여기에 바치는 등이에 온누리에 퍼져  
사방의 모든 진리를 공양케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여기에 바치는 쟁·燈, 茶의 맛으로  
사방의 모든 스님들을 공양케 하옵소서

자비로서 이들 공양을 받으시어 버리지 마옵소서.

香·燈·茶가 佛·法·僧인 三寶를 공양(供養)하는 목적으로 바쳐지는데, 구도자는 부처님 전으로 나아가 불[燈]을 밝히고, 향(香)을 지핀 다음, 정성스럽게 달인 차[茶] 또는 청정수(淸淨水)를 떠서 올리면, 마지막 남은 번뇌를 소멸시키고 부처님의 회상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불국정도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金鉉垓, 183-184).

香과 함께 불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양물이 꽃으로, 『賢愚經』에 의하면

과거 아주 오래 전에 범부제(閻浮提)의 팔만사천국을 다스리는 국왕 파세기(婆塞寄)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각 나라에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향과 꽃을 갖추어 공양에 힘쓰라는 칙령을 내렸다(金鉉垓, 187).

고 하고 있다. 香·燈·茶·花가 불국정도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供養物이 된다.

여기서 다시 팔관회와 연등회에서의 두 연회의 공통점을 찾아 보면,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회(小會)와 대회(大會)로 구성된 연회는, 소회에서 각각 봉은사와 법왕사로 선조의 진전(眞殿)에 참배하기 위하여, 임금은 거가출궁(車駕出宮)을 하고 있고, 대회(大會)일을 맞아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연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도(茶道)와 결합하여 구성되었는가를 팔관회를 통해서 보기로 한다. 小會日에 宣仁殿에서는 꽃탁자[花案]·과반(果盤)·술단지[尊罍]·술상을 갖추어 놓고, 재상들이 모여 大會日에 할 행사를 연습한 후, 왕은 곤룡포(袞龍袍)를 갖추어 입고 선조(先祖)의 진전(眞殿)에 참배하기 위하여 法王寺로 거가출궁(車駕出宮) 한다. 진전에서 재배(再拜)와 茶禮

3) 綵棚: 나무를 걸치고 비단을 깔고 덮는 일종의 高臺 관람석, 綵絲.

4) 百戲: 갖가지 무용과 잡희가 함께 연기장에 출연하여 어우러짐.

5) 註7) 참조.

를 올리고, 복주(福酒)로서 음복(飲福)한 왕은 자황포(赭黃袍)로 옷을 갈아 입은 다음, 그곳 법왕사에서 군신 간의 연회가 이루어 진다. 이 연회의 구성을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小會, 法王寺

신하들이 임금께 헌수(獻壽, 헌작)	주악(奏樂)
왕이 3味の 음식과 술 3잔을 드심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茶와 과반(果盤)의 반사(頒賜)	주악
잡기[百戲]가 등장하여 연기한 후 물러남	주악
왕에게 과반(果盤)·다식(茶食)·차[茶]를 올림[進茶]	주악
왕이 3味の 음식과 술3잔을 드심	주악
왕이 임시 휴게소에서 잠시 쉬	
신하들이 왕께 헌수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술과 과반(果盤)의 반사(頒賜)	주악
왕이 3味の 음식과 술3잔을 드심	주악
무대(舞隊)가 등장하였다가 3味の 음식과 술3순배가 지난 후에 물러감	주악
왕이 임시 휴게소에서 잠시 쉬	
신하들이 왕께 헌수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술과 과반의 반사	주악

이다. 왕은 이후 법왕사를 떠나 궁으로 돌아오고, 대회일(大會日)을 맞는다. 大會日, 宣仁殿에서는 小會 때와 마찬가지로 꽃타자[花案]·과반(果盤)·술단지[尊壘]·술상을 갖춘다. 일체의 배열 배치는 소회 때와 같이 한 후, 팔관회를 축하하러 온 외국사절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관람하도록 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공물(貢物)을 받은 다음

大會, 宣仁殿

왕에게 과반(果盤)·다식(茶食)·차[茶]를 올림	주악
왕이 3味の 음식과 술3잔을 드심	주악
왕이 휴게소에서 잠시 쉬	
신하들이 왕께 꽃을 올리고 [進花] 獻壽함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꽃·술·封藥·果盤 頒賜	주악
왕이 3味の 음식과 술3잔을 드심	주악
무대(舞隊)가 등장하였다가 3味の 음식과 술3순배가 지난 후에 물러감	주악
왕이 임시 휴게소에서 잠시 쉬	
신하들이 왕께 헌수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꽃·술·封藥·果盤 반사	주악
근시관이 왕에게 차를 올림[進茶]	주악
신하들이 왕에게 꽃과 축배를 올림[進花, 獻壽]	주악
왕이 신하들에게 꽃·술·封藥·果盤 頒賜	주악
왕이 수레에 올라 대관전에 들어감	주악

으로 대회일의 행사를 끝내었다(『고려사』 「예지」).

팔관회의 연회를 살펴보면 복잡한 것 같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다(進茶)·헌수(獻壽, 獻爵)·진화(進花)·반화(頒花)·반사(頒賜)·잡기[百戲]·주악으로 구성된 것이다. 연회가 다도(茶道)와 결합하면서 茶의 전후에 식사와 술·잡기가 준비된 것으로, 대략 進茶→進饌→進花→頒花→獻壽→頒賜의 순서로 연회가 진

행되었는데, 다만 팔관회 소회 때에 法王寺에서 진전(眞殿)에 참배 후 進茶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진전에서 茶禮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헌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려왕조의 팔관회를 위시한 연회는, 연회가 茶道와 결합된 형식으로서, 進茶 부분에서는 果盤→茶食→茶의 순으로 배선되었고, 보다 작은 연회에서는 茶食 없이 果盤과 茶로 進茶의례를 구성하고 있었다. 果盤과 茶食은 茶를 마시기 위한 음식이었는데, 果盤은 각 연회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제도에 의하여 그 규모를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반의 규모는 항상 문제가 되어서 예종15년(1120)에는 추밀원의 과일탁자가 제도에 지나쳤으며(『고려사절요 제8권』), 명종9년(1179)에는 최충열이 팔관회 때 百官의 果床과 궁중금군의 복식이 너무 절제가 없으므로 일제 금제하기를 청하고 있다(『고려사절요』 제12권). 이 과반(果盤)의 구성 내용물은 원래는 유밀과(油蜜果)이었다. 유밀과의 사용이 얼마나 많았던지, 의종11년(1157)에는 겨울 10월에 大府寺의 유밀이 다 없어질 정도였으므로(『고려사절요』 제11권), 급기야 명종22년(1192)에는 다음과 같이 왕명을 내리고 있다(『고려사절요』 제13권).

다만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낭비함이 한이 없다. 지금부터는 유밀과를 쓰지 말고 과실로서 대신하되, 작은 잔치에는 3그릇, 중간잔치에는 5그릇, 큰잔치에는 9그릇을 초과하지 말며 찬(饌)도 역시 3가지를 초과하지 않게 하되 부득이하여 더 쓰게 될 경우에는 포(脯)와 젓갈[醢]을 번갈아들여 정식으로 삼을 것이다.

유밀과 대신에 과일을 연회에 사용하도록 한 조치이나, 이후 이 영은 지켜지지 않았다. 충열왕22년(1296) 원(元)나라에 가서 고려세자의 결혼 예식 잔치를 할 때 고려의 유밀과를 썼으며(『고려사절요』 제21권), 충선왕2년(1310) 때 역시 공사(公私)의 연회에 유밀과(油蜜果)와 사화(絲花)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고려사절요』 제23권).

다도(茶道)와 결합된 연회에서의 진다(進茶)때에 set로 올려지는 과반은 유밀과로서 구성되어, 茶와 油蜜果 또는 茶와 茶食이 set가 되어 올려지는 것이 정도이었으나, 유밀과 대신에 과일로 나중에 대체된 것이다.

진다(進茶) 이후에 전개되는 식사부분에서는 時系列型으로 배선된 味數의 음식, 즉 初味·2味·3味로 차려진 3종류의 상에 음식을 담아 술3잔과 함께, 初味·술1순배, 2味·술2순배, 3味·술3순배의 시계열형으로 배선된 것이며, 또한 進茶와 함께 꽃을 바치고 꽃을 꽃는 행위[進花]가 茶道와 결합된 하나의 중요한 연회의례 행위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2) 조선왕조

조선왕조가 건국 이념을 유교에서 찾고, 유교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지만, 그 문화적 배경이 된 것은 불교이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려를 계승한 조선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반으로 예치주의(禮治主義)를 장려하였지만, 주자가례를 만든 주자(朱子, 朱熹 1130-1200)가 살던 송대는 불교가 이미 중국인의 정신생활 속에 흡수되어 버린 시기로서, 주자가 사유한 신유학에는 불교가 적지 않게 공헌하였으며, 주자가례의 완성에는 불교가 그 기저에 있었다(김g, 85-86). 불교적 바탕에 있었던 고려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되었고, 이후 조선조에 채택된 이 가례는 굳이 송나라의 불교에서 찾지 않더라도, 고려의 불교 문화와 주자가례는 깊숙히 더욱더 친화되어 조선조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연회가 몇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영접연회·가례·진찬이 그것이다. 이 중 생일 축하연인 1887년의 진찬(進饌)의 연회 구성을 보면 진어찬안(進御饌案)→진화(進花)→반화(頒花)→헌수(獻壽)→반사(頒賜)→진다(進茶)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金d, 279). 앞서 고려의 팔관연회에서의 진행과 비슷하나, 다만 고려에서는 진다(進茶)의 부분이 앞에 있었지만, 조선조 후기의 연회에서는 뒤에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다도(茶道)와 결합된 고려의 연회의 맥이, 그대로 조선왕조 연회에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진다(進茶) 때에 과반(果盤) 또는 별반과(別盤果)가 茶와 함께 set가 되어 올려졌다. 과반에 올려지는 찬품은 물론 유밀과(油蜜果)가 주된 찬품이었으나 각종 茶食·生果實·국수[麵]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에서 진다(進茶) 때에 set로서 다식 또는 과반이 별개로 올려졌는데, 고려에서의 유밀과와 과일로 주로 구성되었던 과반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밀과와 과일뿐만 아니라 茶食도 과반 또는 별반과의 찬품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국수를 먹도록 국수·탕·전유아 등이 찬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과반 또는 별반과는 다담(茶啖)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

다. 사신이나 양반 계층을 위한, 궁중의 과반을 대신하는 상차림의 명칭으로 다담이 사용되었다(金d, 70)(김f, 108-110). 이 다담(茶啖)은 따라서 원래는 茶와 함께 set로 올려지는 상차림으로 볼 수 있지만, 각종 잔치의 茶啖床은 酒와 함께 set로 올려지도록 하고 있다. 茶가 酒로 바뀐 것이다(金d, 70)(김f, 10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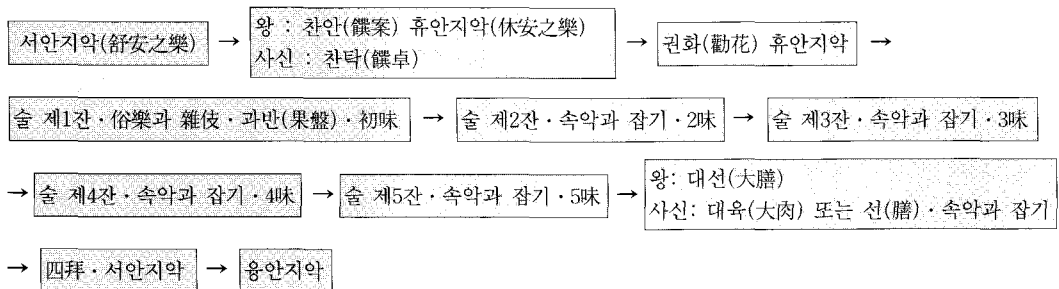
앞서 고려의 팔관 연회에서는 식사의 부분이 별도로 있음을 알았다. 3味와 술3순배가 식사로서 헌수와는 별도로 연회에 있었는데, 조선왕조에서는 이 식사의 부분을 따로 두지 않고 헌수(獻壽)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고려에 이어 味數와 술의 순배는 그대로 행하여졌다. 시계열형으로 구성된 상차림형태를 고려에 이어 계속 연회에서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사신 접대에 나타난 茶道와 결합된 宴會 飲食과 儀禮

일본 사신 접대를 위한 연회 음식의 구성은, 조선조 내내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태종18년(1418) “이제부터 큰 나라의 사신을 위한 연회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차리는 연회에는 대탁(大卓)을 쓰지 말고 일과상(一果床)을 쓸 것이다.”라고 지시한 이후(『세종실록』 卷5 태종 18년 11월 乙亥條), 중국 사신을 제외한 인접국가의 사신 접대에는 大卓은 동원되지 않았다(김b, 352-355).

대탁이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본사신 접대 연회는 종류는 많았으나, 이중 궐내연(闕內宴)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비록 대탁은 올려지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그 연회음식 의례는 대탁이 올려진 것과 같았으며, 다만 대탁 대신에 일과상을 올린 것은 의례 부분은 그대로이고, 연회 음식의 간소화이다. 대탁(大卓)이 큰 연회 때에 차리는 간반(看盤)으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金h, 134-141), 대탁 대신에 올렸던 일과상(一果床)의 역할 역시 간반(看盤)이라고 볼 수 있다.

궐내연에서 일본 사신에게 올려졌던 상차림의 구성은 소일과사행상(小一果四行床)·대육(大肉)·과반(果盤)·미수(味數, 5味)이다(김a, 353). 이들 상차림과 의례의 결합은 아래와 같다(김a, 357-358).



이상과 같은 연회음식과 의례는 앞서 전기한 바 있는 1887년의 조선왕조의 진찬 연회구성과 같은 것으로, 일본사신을 위한 길내연 구성 상차림과 조선왕조의 연회 구성 상차림을 비교하면 찬탁(饌卓)이 진어찬안(進御饌案), 권화(勸花)가 진화(進花), 술제5잔 및 5味が 헌수(獻壽), 대육(大肉)이 반사(頒賜)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1887년 조선왕조의 진찬 때 연회 구성과 다른 점은, 일본 사신 접대에서는 진다(進茶)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茶 대신에 酒로서 대치된 결과이며, 차와 set로 올려된 과반(果盤)이 일본 사신 접대에서는 술 제1잔 때에 올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려왕조에서 보여 주었던 茶道와 결합된 연회음식과 의례는, 조선조 말까지 생신축하 연회이든 사신 접대 연회이든 여전히 그 모습이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4) 조선통신사 접대에 나타난 茶道와 결합된 宴會 飲食과 儀禮

무로마찌[室町, 1338-1573]시대에 완성된 본선요리(本膳料理)인 753膳은 安士桃山(1574-1602)시대에 들어와, 다도(茶道)와 결합하면서, 차를 끓이는 점다(點茶)를 중핵으로 한 연회의 변형으로, 점다의 전후에는 식사와 술이 준비되었고, 그 식사와 술은 포식을 위한 식사가 아니고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다도를 지탱하고 있는 유아한 정취의 이념과 미 의식이 표현된 요리로서 되었다(熊倉a, 194-195).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까지의 일본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으며, 카마쿠라[鎌倉, 1192-1333]시대 이후부터는 무인(武人) 정권으로 넘어가 에도[江戸, 1603-1867] 시대에까지 이르렀고, 日本史는 따라서 왕이 통치하던 시기와 무인이 통치하던 막부(幕府)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헤이안[平安]시대에는 연회 때에, 조선왕조의 연회시에 나타나는 술의 안주인 미수(味數)로서의 미(味)가 대(臺) 또는 진(進)으로서 제공되고 있었다. 즉 시계열형의 음식 배선법이 동원되고 있었으며, 이 뿐만 아니라 공간전개형인 대탁(大卓)의 찬탁(饌卓)도 있었기 때문에(金h, 148-154), 공간전개형과 시계열형으로 이루어진 연회음식의 구성은 고려 및 조선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헤이안 시대 때의 향찬(饗饌, 大卓에 해당)과 酒 및 進, 頒賜로서의 大膳으로 이루어진 연회음식의 구성은(金h, 148-154), 무로마찌 시대에 들어와 大卓인 향찬이 사라지고 식3헌(式3獻: 초헌·2헌·3헌과, 술안주인 시계열형으로 배선된 3개의 臺), 및 753膳(식사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7종류·5종류·3종류의 음식을 차린 膳

을 시계열형으로 배선)으로 되었다(熊倉b, 60)(加藤, 7).

무로마찌시대에 武家の 의례와 함께 발달한 本膳요리는 에도시대에 들어와서는 式3獻이 753膳으로, 식사부분인 753膳을 本膳·2膳·3膳 또는 753膳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무로마찌시대의 本膳料理인 753膳에 茶道를 접목시킨 것이 에도시대의 753膳이다(김c, 448-452).

궁가(宮家)·장군가(將軍家) 등이 가신(家臣)의 저택을 방문하여 성대한 향연을 하였던 어성(御成)에서의 연회를 보면, 무로마찌시대와 에도시대의 연회음식 구성이, 전자는 茶가 없고 후자는 茶가 삽입된 점은 확실히 다르다(金h, 155-157). 1624년의 어성(御成)에서의 연회음식에서는 무로마찌시대의 式3獻을 獻部로 기록하고 있고 식사부분을 膳部로 기록하고 있는데 식사부분인 膳部에서 御果子와 함께 御茶가 맨 나중에 제공되고 있다(堀內, 8-16).

조선통신사 향응에 제공된 753膳으로 구성된 연회음식과 그 배선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堀內, 8-16)(柴村, 13-41)(황호, 『해사록』).

獻部	初獻(絲花彩雲臺, 술잔을 올려놓는 臺)
(753膳)	7의 膳(本膳)
	押(젓가락을 올려놓는 臺)
	吸物(일종의 湯)
	二獻(絲花彩雲臺)
	5의 膳
	吸物
	三獻(絲花彩雲臺)
	3의 膳
	吸物
膳部	振舞禮(雜伎·음악·무용)
(753膳)	7의 膳(本膳)
	5의 膳
	3의 膳
	御果子
	御茶

1차연이 술3헌을 올리는 헌부(獻部)인 753膳과 진무례(振舞禮)이고 2차연이 식사를 올리는 선부(膳部)인 753膳으로 1차연에서는 술 제1잔·7의 膳·湯 → 술 제2잔·5의 膳·湯 → 술 제3잔·3의 膳·湯 → 振舞禮로 되고 있으며, 2차연에서는 7의 膳 → 5의 膳 → 3의 膳 → 果子 → 茶의 순으로 배선되고 있다. 조선왕조에서 보이는 공간전개형의 大卓이 없는 시계열형으로

이루어진 배선으로서, 1차연의 7의 膳·5의 膳·3의 膳은 일종의 조선왕조가 일본사신 접대시에 채용한 初味·二味·三味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상의 상차림 배선은 조선통신사 3使가 왕복행 때 및 에도 체류중의 연회를 나타낸 것이고, 조선통신사가 에도에서 국서를 교환한 후에 관백과 함께 있었던 연회상차림의 구성은 2차연이 없었으며, 1607년 경섭이 쓴 『해사록』의 기록에 의하면, 753膳의 배선 이후 식사 부분이 없이 茶果床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다. 국서 교환 후의 연회는 대체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동일하여서, 753膳 네 번째膳 다섯 번째膳으로 상차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김c, 449), 경섭이 쓴 『해사록』의 기록은 정확하다.

조선통신사 향응에 제공된 연회가 1차연과 2차연으로 구성되었던, 1차연으로 끝이 났던 간에, 茶果의 배선은 맨 뒤로 하고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고려왕조에서는 연회 때의 茶果의 배선은 맨 앞에 있었다. 이것이 조선왕조에 들어서서는 초기에는 앞에, 후기에는 뒤에 배선하고 있는데(金d, 164, 166), 조선통신사 향응에서는 뒤로 하고 있는 것이다. 茶의 배선의 앞·뒤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둔다면, 앞에 茶를 배선하는 연회가, 차의 중요성이 어떤 다른 음식 보다도 강조되는 연회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적 색채가 강했던 고려 왕조의, 맨 앞에 茶를 배선했던 연회가 보다 茶道가 강했던 연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 5) 조선통신사를 위한 연회를 통해서 본 朝鮮王朝의 壽杯床과 果盤

조선통신사를 위한 향응에 제공되었던 에도시대의 753膳에 대하여, 1636년에 쓴 황호의 『동사록』에는 12월 14일 에도[江戶, 東京]에서 관백이 베푼 연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공복을 입은 왜관이 서쪽 협실로부터 음식을 바쳐오고, 또 사화채운대(絲花彩雲臺)를 받들고와 그 위에 금을 칠한 土杯를 놓고서, 먼저 관백 앞에 바치고 다음에 세사신에게 바쳤다. 정반과 접시가 모두 금인데 一路에 비하여 더욱 정교하고 꽃도 정교하다. 이것은 일본의 큰 경축 예식에 쓰이는데 마치 우리 나라의 수배상(壽杯床)과 같다…….

즉, 사화채운대가 우리 나라의 수배상과 같다는 것이다. 술잔을 올려 놓는 사화채운대에 대하여 황호는 『동사록』에서 다음과 같이도 묘사하고 있다.

잔치 때에는 753제도 가 있다. 처음에 7그릇이 담긴 반을 올리는데 물고기 또는 채소를 가늘게 썰어 놓은 것이 마치 우리 나라의 果盤과 같다. 다음에 5그릇이 담긴 반을 올리고 다음에는 3그릇이 담긴 반을 올리는데, 물새를

잡아서 그 깃털을 그대로 둔 채 두 날개를 펴고 등에 금칠을 하며 과일·물고기·고기 등에 모두 금박(金箔)을 입힌다. 술잔을 받치는 상에는 반드시 전채화(剪綵花: 깎아 만 들어서 색깔한 꽃)를 올려놓고 후 나무로 새겨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천연색 꽃과 아주 흡사하다…….

황호가 묘사한 에도시대의 사화채운대는 황호가 753제도에 대하여 묘사한 전채화를 올려놓은 술잔을 받치는 상과 같은 것이다. 에도에서 국서교환 후의 연회상차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753膳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에도에서는 그 규모가 좀더 화려했으리라고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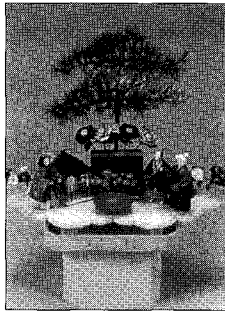
무로마찌시대의 式3獻이 에도시대에 753膳으로 되었음은 전기하였다. 식사 전에 배선되는 에도시대의 753膳은 술3현을 위한 안주용 간반(看盤)에 해당된다. 안주는 753膳으로 차려졌는데, 사화채운대(絲花彩雲臺) 위에 술제1현이 놓여 올려질 때 7종류의 음식을 차린膳이 안주용 간반으로서 배선되고, 사화채운대 위에 술제2현이 놓여 올려질 때 5종류의 음식을 차린膳이 안주용 간반으로서 배선되며, 사화채운대 위에 술제3현이 놓여 올려질 때 3종류의 음식을 차린膳이 안주용 간반으로서 배선되는, 시계열형의 배선법이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獻數에 따라 배선되는 味數와 같은 것으로, 조선왕조의 미수에 적용시키면 3味에 해당된다.

술잔을 올려놓고 배선되는 사화채운대란 絲花와 彩雲으로 꾸민 상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수배상(壽杯床)과 같다는 것이다. 수배상은 생일을 축하하는 진찬연(進饌宴)에서, 헌수(獻壽) 때에 술잔을 올려 놓는 상을 지칭한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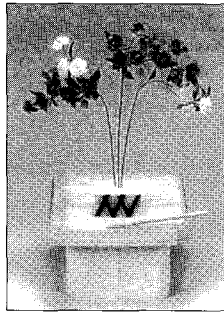
絲花彩雲臺와 壽杯床이 같다고 밝힌 황호의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에서는 원반이나 팔각반 위에, (아마도 불교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활짝 핀 연꽃은 八正道<sup>6)</sup>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각반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있지만)(金鉉垓, 97), 수파련(水波蓮)이나 3층대수파련(三層大水波蓮)을 올려놓고 수배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2). 불가(佛家)에서의 연꽃은 長壽와 不死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는 조선통신사 접대에 사용되었던 젓가락을 올려 놓는 盤인 押이 등장하고 있다. 1887년에 행한 조선왕조의 만경전정일진찬에서의 식의례 절차를 보면 壽酒 제1작을 올리기 전에 시점(匙楪)을 올리고 있다(金d, 279). 조선왕조의 연회때에는 원반이나 팔각반 위에 床花인 紅桃花를 올려놓고, 押과 비슷한 유형의

6) 八正道 : 八聖道라고도 함. 불교 수행에 있어서의 여덟가지 명목. 곧, 正見·正語·正業·正命·正念·正定·正思惟·正精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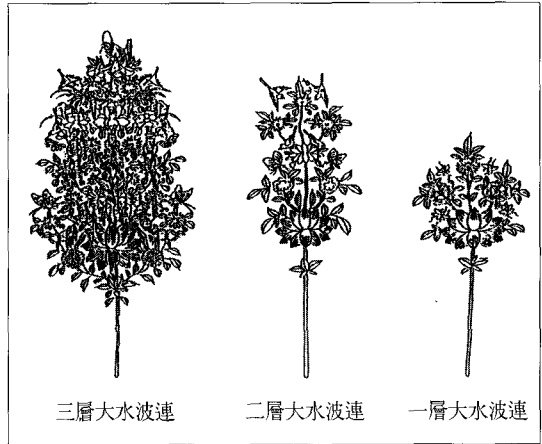
(a) 奈良臺



(b) 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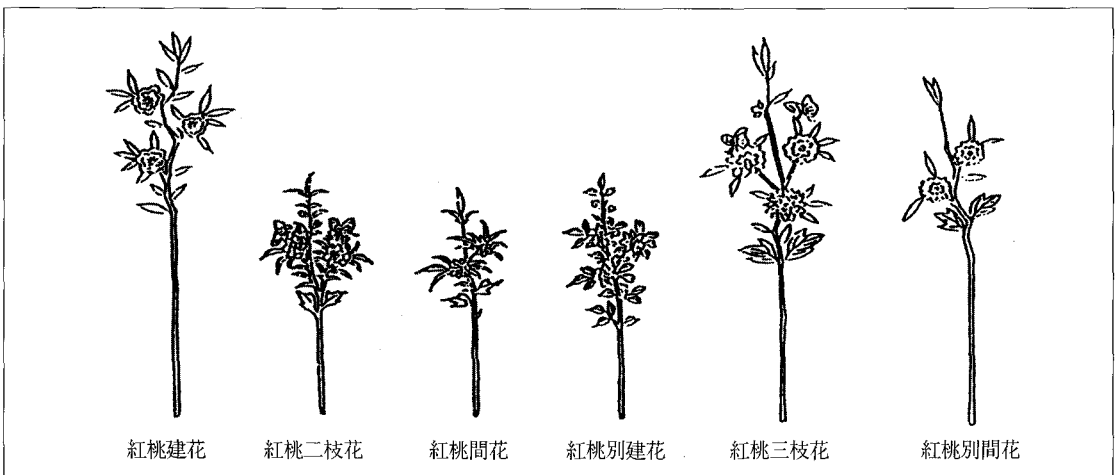
〈그림 1〉 황호가 『동사록』에서 기록한 조선통신사 접대에 배선된 絲花彩雲臺, 일본에서는 이것은 奈良臺라 부른다. 朝鮮王朝에서는 水波連을 팔각반이나 元盤에 올려서 壽杯床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奈良臺나 壽杯床이나 그 용도는 술잔을 올려 놓는 헌작용 상이었다. 조선통신사 접대에 사용되었던 정가락을 올려놓는 盤인 押. 조선왕조에서도 원반이나 팔각반 위에 床花(紅桃花?)를 올려놓고 시접을 올려놓는 匙楪盤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연회시 第1爵에 앞서 匙楪을 올릴 때에 押과 비슷한 유형의 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柴村b, 12-15)(金d, 279).

匙楪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술잔을 올려 놓는 수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회의례에서 수주 제1작을 올리기 전에 행하는 시접진상 의례에서는 당연히 시접을 올려 놓는 시접반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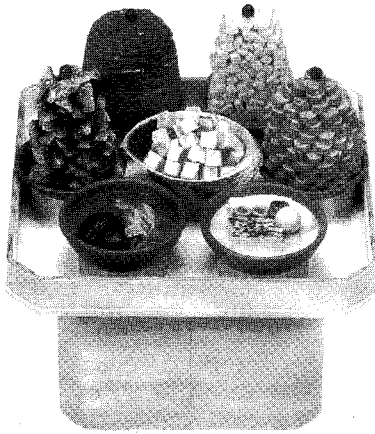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왕조의 吉禮에 속하는 연회 때에 사용되었던 가장 격이 높은 床花인 水波連(金d, 277).

앞서 황호는 753膳에서 처음에 배선되는 7종류의 음식을 차린 膳이 우리 나라의 果盤과 같음을 지적한 바 있다(그림 4). 果盤이란 원래 고려 왕조때에 茶와 함께 올려진 유밀과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유밀과·과일·국수·탕·전유아로 찬품이 구성되어졌고, 이 과반이 궁중용어라면, 일반 양반 계층에서는 과반 대신에 茶啖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음은 전기한 바와 같다. 대마도에서 배운 조선식의 조선요리에 의한 향응에 나온 음식에 대하여 1607년 경섭은 『해사록』에서 "떡·과일을 차리고 造花를 쫓은 것이 茶啖과 비슷하다."고 기술하고 있고, 작자미상인 1643년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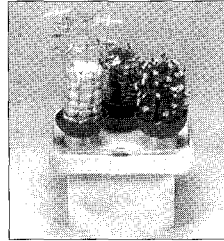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왕조의 吉禮에 속하는 연회 때에 사용되었던 床花의 일종인 紅桃花(金d,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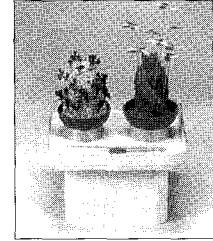




7의 膳



3의 膳



2의 膳

〈그림 4〉 황호가 『동사록』에서 기록한 우리 나라의 果盤과 같다는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한 7의 膳. 조선왕조의 과반은 元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元盤에 7의 膳에 차려진 음식과 유사하게 고여 담았을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하여 배선된 果物류. 고여 담은 방법과 床花에서 조선왕조의 茶啖床과 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金d, 160)(柴村b, 12-15).

미동사일기』에서는 茶啖을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어서 떡이나 과일위에 꽃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果盤과 茶啖은 같은 성격의 역할을 지닌 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선왕조의 果盤은 그림 4의 형태와 유사한, 고여담은 음식에 床花로 장식하였으며, 이들을 元盤에 차린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에서는 果盤은 元盤을 사용하였으며 床花로 장식하고 있다(金d, 25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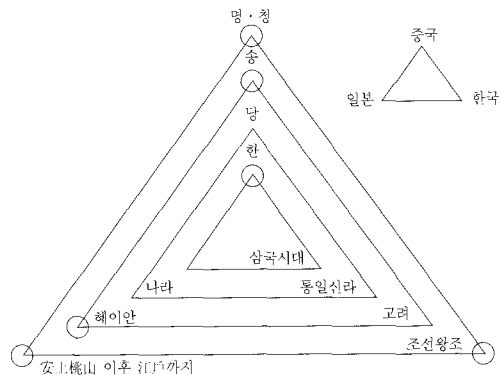
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에는 대(臺) 또는 진(進)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무로마찌[室町]시대에서 에도[江戸]시대까지는 선(膳)이 되고 있고, 한반도의 경우 조선왕조에서는 미(味)를 채택하고 있었다. 물론 이상의 味·行·臺·進·膳 등의 표현법에 대한 기록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확인된 것만을 적은 것이다(金h, 115-158). 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看盤과 味數의 전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림 5이다(金i, 289).

### 3. 看盤과 味數 및 床花

#### 1) 看盤과 味數

동아시아 상층부 향연에서 등장하는 보이기 위한 장식용 상차림인 간반(看盤)과 술의 헌수(獻數)에 따라 술안주로서의 味數의 출현은 漢, 혹은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看盤이 일시에 차려지는 空間展開型 상차림이라면 味數는 한사람이 하나의 set로 이루어진 음식상을 받는 독좌형 時系列型 상차림이었다(金h, 118-121).

장식용으로 차려 놓는 간반 외에 한사람이 시계열형 독좌형 상차림을 받는데 일미(一味, 初味)가 끝나면 이미(二味)가 올려지고 이미가 끝나면 삼미(三味)…… 순으로 올려지는 것으로 문헌적으로는 漢代에 등장하고 있다(金h, 120). 한 대에 등장하는 시계열형 독좌용 음식상인 미(味)는 송시대에는 미(味) 또는 행(行)으



〈그림 5〉 동아시아 향연의 삼각형 구조(金i, 289)

○ 은 문헌상의 看盤과 酒 및 酒의 獻數에 따라 안주로서 味數가 등장하는 향연

조선왕조의 경우 간반(看盤)은 두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유교적간반에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Ⅲ장에서 후술하는 완전히 불교적 간반이다. 전자는 조선왕조 궁중 의궤 상에 등장하는 영집식에서의 명나라 사신 접대 때에 올리는 下馬宴·上馬宴과, 嘉禮에서의 同牢宴인 大卓으로, 右俠床·左俠床·宴床·面俠床·大膳·小膳으로 이루어진 set로된 상차림이 그것이며(金d, 82-90, 142-156), 후자는 阿架床이라 지칭되는 것인데 아마도 왕 또는 대비의 壽宴床에 올려졌으리라 판단된다. 이 양자 모두는 고려 왕조의 전통을 이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고려 왕조의 기록은 없다. 다만 阿架床이라 판단되는 단편적인 기록들(Ⅲ장을 참조 바람) 외에, 간반(看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었던 미수(味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들로 유추할 수 있다.

봄 2월 앞에는 사망 한발되는 케안(几案)이 있어 금과 옥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반찬과 음식을 배설해 놓았다(『고려사절요 제11권』, 의종17년).  
5월에 왕이 선원사에 행차하였다. 최이가 왕에게 음식 6상을 대접하였다. 七寶로 장식한 그릇을 사용하고……(『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33년).

이상에 나타난 의종17년(1163)의 기록은 간반이고, 고종33년(1246)의 기록은 미수로 생각되며, 이 밖에 전장에서 기술한 고려왕조의 팔관연에서의 진찬(進饌) 역시 阿架床에 해당되는 간반이었을 것이다(표 1 참조).

고려를 이은 조선왕조의 연회때에 사용했던 간반은 물론 空間展開型이고, 미수는 한사람이 하나의 set로 이루어진 음식상을 받는 時系列型이다(金d, 82-90, 142-156). 화려한 공간전개형의 간반과 시계열형의 미수가 어우러진 것이 소위 고려에 이은 조선왕조의 연회였다.

일본의 경우 왕조문화화던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에는, 조선왕조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간반과 미수가 향연에 등장하였다. 즉 공간전개형의 간반과 시계열형의 미수가 어우러진 연회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차림에서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金i, 278-288). 그러나 카마쿠라[鎌倉, 1192-1333]시대 이후 武家社會가 되면서 武家儀禮는 궁중의례와 달리 간소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공간전개형의 간반은 점차 소멸되었다.

조선왕조 전기에 해당하는 무로마찌[室町, 1338-1573]시대에 무가의례와 함께 발달한 本膳料理(753膳)는 보이기 위한 看盤用 요리로서 지극히 儀式化되기에 이른다. 의식화된 간반용 요리로서의 극단적인 발달은 安土桃山(1574-1602)시대이며(熊倉a, 194-195), 이후 에도[江戸, 1603-1867]시대 때의 조선통신사 접대에도 채택되고 있다. 조선왕조의 간반이 공간전개형이라면, 에

도 막부의 간반은 시계열형으로서 조선통신사 접대에 올려졌던 헌부(獻部)의 753膳은 완전한 간반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 2) 床花

### ① 고려왕조

상화(床花)의 유래는 불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香·燈·茶·花로 나타나는 불교에서의 공양은 茶道로 이어졌으며, 茶와 더불어 올리는 果와 花는 茶道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부처님 처소에 香과 花를 공양한 인연으로도 미륵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金鉉堧, 261) 등의 이러한 불교와 관련하여 파생되었다고 보이는 花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고려사절요』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록들을 요약한 것이 아래와 같다.

왕이 金花 8가지[枝]를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고, 오른손으로 금술잔을 들고(『고려사절요 제 3권』, 현종 10년).

河清節이므로 萬春亭에 행차하여 재상·시신들과 더불어 延興殿에서 연회를 열었는데……綵棚·檜花·軒仙도(獻仙桃)·포구락 등의 놀이를 갖추어 행하고……(『고려사절요 제 11권』, 의종 21년).

別祈思所를 세우고는 金과 銀으로 꽃을 만들고 金과 玉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려사절요 제 11권』, 의종 24년).

燃燈大會에 國喪으로 꽃을 꽂는[插花] 여러 놀이는 금하였다(『고려사절요 제 13권』, 명종 14년).

금나라사신이 말하기를 …… 예절은 마땅히 吉禮를 따라 綵棚을 가설하고 풍악을 연주하며, 꽃을 꽂아야 할 것이며……(『고려사절요 제 13권』, 명종 14년).

임정기가 왕에게 음식과 꽃 과일을 바쳤는데……(『고려사절요 제 21권』, 충열왕 13년).

꽃구경을 위한 연회 때에 …… 청랍군(靑蠟絹)을 오려서 파초(芭蕉)를 만들었더니……(『고려사절요 제21권』, 충열왕 21년).

唐 玄宗의 밤놀이하는 그림을 보고 …… 국신고(國隄庫)의 넓은 비단 20필로 연 회날에 꽃계단을 꾸몄다가 오래 되면 이를 새로 갈아놓았다(『고려사절요 제21권』, 충열왕 22년).

公私의 연회에 油蜜果와 絲花(색비단에 금실로 수 놓은 造花)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금지한다(『고려사절요 제 23권』, 충선왕 2년).

잔치에 布를 써서 꽃을 만든 것이 무릇 5140여필(『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2년).

왕이 演福寺에 행차하여 文殊會를 크게 베풀었다……실로 만든 꽃과 비단으로 만든 鳳의 광채가 사람의 눈에 부시었다……(『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16년).

이상의 기록들에 의하여 造花의 용도는 머리에 꽂는 꽃[簪花]·꽃병용 꽃[檜花]·제사 때 올리는 꽃·놀이에서 쓰는 꽃[插花]·음식에 꽂는 꽃[絲花, 床花]·연회용 꽃·도량[道場]에 쓰는 꽃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조화의 재료는 견(絹)·금(金)·은(銀)·베[布]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고려왕조에서는 길례(吉

禮) 때에는 채붕(綵棚)·풍악·꽃이 하나의 set로서 연회 때에 수반됨에 따라 이들 조화의 용도는 광범위한 부분에 소용되었을 것이며, 조화를 만들기 위한 국고의 낭비도 상당히 심각하였을 것이다. 충선왕 2년(1310)에 왕의 영에 의하여公私의 연회에 유밀과와 絲花의 사용을 금한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 ② 조선왕조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의 연회도 비록 조선왕조가 유교를 채택하였다고는 하나, 연회의 구조는 고려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조선왕조에서도 고려왕조와 마찬가지로 吉禮 때에는 綵棚·풍악·꽃이 하나의 set로서 연회 때에 수반되었다(『세종실록』). 꽃의 용도와 꽃을 만드는 재료 역시 고려왕조와 같았는데, 본 장에서는 다만 상화(床花)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연회상에 쓰는 상화를 만드는 재료는 그 등급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絹絲로 만든 꽃·絹絲로 만든 봉황새,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꽃(『世宗實錄 卷22권』, 세종5년 10월條), 紵布花, 紙花(신숙주 『해동제국기』) 등이 있어서, 대접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상화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달리 사용하였다.

상화로서 사용된 꽃의 종류로는 연꽃[水波蓮]·홍도화(紅桃花)·월계화(月桂花)·사계화(四季花)·목단화(牡丹花)·국화(菊花)·가자화(茄子花)·유자화(柚子花)·복분자화(福盆子花)·포도화(葡萄花)·시자화(柿子花)·과자화(瓜子花) 외에 봉황새·극락초 등이 있었고(金d, 276-277), 이들은 수미산(須彌山) 속의 상징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다. 아름다운 연꽃과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床花를 연회 음식에 꽃음으로서, 茶道와 결합된 연회 의례를 더욱더 화려하고 장엄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일본사신 접대를 위하여 조선왕조는 연회 때에 絹花·紵布花·紙花를 끌고루 채택하고 있다. 일본 사신의 등급에 따라 사용되는 상화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김c, 352-353).

일본 사신 접대는 공식적인 것 외에, 일본 사신의 조회를 받거나(『세종실록 卷28권』, 세종7년 6월條), 새해축하의식 때의 연회(『세종실록 卷31권』, 세종8년 正月條), 동지날 연회(『세종실록 卷34권』, 세종8년 11월條) 등이 있었으며, 이 때에는 조선왕조의 모든 재상들과 함께 사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회하였다. 세종25년(1443) 11월 동지날 축하의식을 대궐안에서 하면서 일본사신과 야인들 70여명에게 연회를 차려 주었는데, 술에 취한 일본 사신 광업과 우촌은 음식상 위에 있는 녹색꽃을 달라고 하면서 본국에 가서 자랑삼아 보이겠다고 해서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와있

다(『세종실록 卷102권』, 세종 25년 11월條).

床花와 관련된 일본사신에 관한 『세종실록』의 기록은, 적어도 세종25년(1443) 그 당시의 일본에는 연회에 상화가 쓰여지지 않았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일본사신에 대한 조선왕조로부터의 대접에 의하여, 조선왕조의 연회 문화가 일본의 식생활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 ③ 일본

앞서 安土桃山시대(1574-1602)에 시계열형 배선으로 이루어진 本膳料理(753膳)가 간반(看盤)용 요리로서 발달하였음을 전기한 바 있다. 이 시기에 茶道가 완성되었으며, 연회에 茶道가 결합하여 儀式化된 看盤用 요리로서 극단적인 발달을 보게 된다(熊倉a, 194-195).

일본의 연회에서 床花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경우 茶道와 결합된 宴會 및 床花의 문헌적 출현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보다 약600년 늦게 이들이 출현한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과 세종25년(1443) 일본사신이 본국에 가져가서 자랑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베풀었던 연회 석상의 상화를 일본에 가지고 갔다는 『실록』의 기록을 참고로 하였을 때, 적어도 床花의 文化的 전파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하여 에도시대[江戶, 1603-1867]에 보여주고 있는 연회용 간반(看盤) 및 간반에 등장하는 床花는 조선왕조의 연회 상차림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4).

## 4. 朝鮮의 車食五果床과 日本의 3汁 17菜

### 1) 車食五果床

거식오과상(車食五果床)이란 5가지 과일 차리는 4사람이 운반하는 식상[車食床]으로 풀이되며 지금의 교자상 크기 정도일 것이다(김a, 346). 고려시대 이후 유밀과를 놓는 가짓수에 의하여 잔치의 규모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방법을 썼던 것으로 이 명칭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종22년(1192)에 내린 “다만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낭비함이 한이 없다. 지금부터는 유밀과를 쓰지 말고 과실로서 대신 하되, 작은 잔치에는 3그릇, 중간잔치에는 5그릇, 큰 잔치에는 9그릇을 초과하지 말며……”와 같은 왕명은 왜 五果床이란 명칭이 붙여졌는가를 설명해준다 하겠다(『고려사절요 卷13권』, 명종22년 5월條).

이 왕명을 근거로 한다면 車食五果床은 중간잔치에 사용되는 상이다. 실제적으로 조선정부는 일본사신 접

대 때에 정사에게는 車食七果床, 사신 수행원에게는 車食五果床을 早飯(初朝飯에 해당)으로 차렸기 때문에, 이 車食五果床은 車食七果床보다는 한 단계가 낮은 상으로서 중간 정도의 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김a, 347).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 때에 早飯으로서 죽(粥)을 위주로 했던 거식오과상의 찬품은 아래와 같다.

車食五果床

油蜜果 및 果實	5기	正果	1기
魚肉肝南	2기	床花餅	1기
菜	1기	餅	1기
沈菜	1기	粥	1기
生鮮	1기	麵	1기
湯	2기	種子3기(芥末·淸蜜·薑醋)	
味數(三味)			
湯	3기		

거식오과상의 구성은 본상인 거식오과상과 미수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거식오과상에는 중지 3기를 제외한 17기의 찬품이, 미수에는 탕3기가 차려졌다(김a, 347). 空間展開型인 車食五果床과 時系列型인 味數가 함께 어우러진 상차림법이다.

2) 3汁17菜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하여 식사부분인 膳부에 등장하는 것으로는 753膳외에 3汁 17菜가 있었다. 3즙 17채(3汁 17菜)란, 탕이 3기 찬품이 17기란 뜻이다. 조선정부가 일본 사신 접대시에 내놓았던 거식오과상의 규모와 같은 17기의 찬품과 3기의 탕인 셈이다. 이 상차림은 일본 정부가 조선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한 이러한 류의 상차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3汁 17菜·3汁 15菜·3汁 14菜·3汁 13菜·3汁 11菜·3汁 9菜·2汁 8菜·1汁 6菜도 있었다(高正b, 1012). 신분에 따라 이들 상차림이 각각 달리 배선되었는데, 9菜까지는 3汁, 8菜까지는 2汁, 6菜까지는 1汁을 내놓고 있다.

이 음식상은 看盤인 獻部の 753膳이 나온 다음에 膳部인 식사때에 식사를 위하여 배선되는 것으로, 空間展開型이다. 朝鮮의 車食五果床이 공간전개형상차림과 시계열형 상차림으로 구성된 것에 반하여 3汁 17菜는 한 상에 3汁과 17菜를 전부 올려놓고 있다.

3汁 17菜가 한 상에 汁3과 菜17을 전부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앞서 배선된 獻部の 753膳에서 술3잔이 시계열형으로 배선되었던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선의 거식오과상에 따라 나오는 味數인 3味(初味: 탕, 二味: 탕, 三味: 탕)의 湯은 술을 위한 안주로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굳이 식사 부분의 상

차림에서 汁을 시계열형으로 따로 배선해야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III. 대마도에서의 宴會를 통해서 본 朝鮮王朝의 阿架床

조선통신사가 에도로 향해서 가는 도중의 첫 기착지이기도 하면서, 에도에서 조선으로 올 때에 마지막 기착지이기도 했던, 대마도에서의 연회는 하선연(下船宴, 환영연)과 상선연(上船宴, 환송연)으로 배풀어졌다. 이 연회는 1차연과 2차연으로 구성되었는데, 1차연은 조선식의 조선요리에 의한 향응이었고, 2차연은 일본식의 일본요리에 의한 향응이었다(김c, 452-453)(高正, 1067).

1차연에 대한 使行 기록에 의하면(표 2), 연회음식의 구성은 크게 발 높은 상과 개인음식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서에 각각 나누어 의자에 앉고, 그 앞에 개인 음식상을 빌려 놓았으며 북쪽에는 발 높은 상을 놓았다는 것이다. 북쪽에 놓여진 구름을 조각한 발 높은 상 2개에는 음식을 높이 고였는데, 금·은·유리그릇·造花·假山·새·물고기 등을 차려 놓은 우리 나라의 阿架床과 같다는 것이고, 의자에 앉은 개인 앞에 놓여진 상에는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어서 떡이나 과일 위에 꽂았고 우리 나라의 茶啖床과 같다는 것이다. 이 발 높은 상과 개인 음식상으로 구성된 잔치는 과일과 떡을 위시한 찬품·상탁·기명 모두 우리 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조선식의 조선요리에 의한 향응이었다.

여기에서 북쪽에 놓여진 구름을 조각한 상 2개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의 阿架床과 같은 것은 물론 看盤이다. 阿伽란 佛께 올리는 정수(淨水)를 담은 그릇을 뜻하며(諸稿, 799), 阿架床이란 佛께 올리는 정수를 올려 놓는 상으로 해석된다. 즉 茶를 올리는 상이다. 연회에서의 看盤인 阿架床의 확립은 통일신라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려시대의 것이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阿架床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적 자료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공민왕 16년(1367) 3월에 왕이 문수회(文殊會)를 연복사(演福寺)에 행차하여 크게 배풀었는데, 이 때 佛殿 한 가운데에 채색비단을 연결하여 수미산(須彌山)을 만들고 산을 빙 둘러 촛불을 켜고....., 실로 만든 꽃과 비단으로 만든 봉황새[鳳]의 광채가 눈이 부시었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사절요 제28권』).

〈표 2〉 使行기록을 통해서 본 대마도주가 베푼 연회구성에서의 1차연(김c, 454)

연도와 사행기록	1607년 (『해사록』)	1624년 (『동사록』)	1636년 (『동사록』)	1643년 (『계미동사일기』)	1655년 (『부상록』)
연회의 양식	우리나라의 잔치의식과 흡사	과일상과 떡들은 우리나라 규모를 모방	상탁·기명·찬 품은 모두 우리나라제도를 모방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
발 높은 상(看盤)	북쪽에 구름을 조각한 상2개 마치 阿架床과 같음 假山·彩花·새·물고기등의 물건을 차려 놓고 금과 은으로 도장하였다	床花·금·은·유리구비			높이 고인 상은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함. 금·은·유리그릇·조화가 구비
개인 음식상	좌석앞에 떡·과일을 차리고 여기에 造花를 꽃았다. 茶啖床과 비슷하였다.			의자 앞에 미리 탁자를 놓았는데 음식과 그릇이 정결.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어서 떡이나 과일위에 꽃아 놓았다.	
좌석배치	의자[交椅]에 앉음 동서로 갈라 앉음	사신은 東壁에 현방(玄方)① 이하는 西壁에 각각 의자[交椅]에 앉음		의자에 앉음	사신은 동벽에 의성(義成)②은 서벽에 각각 의자에 앉음
의복	公服		公服	公服	公服
酒數		술9순배		술9순배	술9순배
茶	有				
연회의 종류	전별연(錢別宴)	하선연	하선연	하선연	하선연

①②는 일본인으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가장 고위급의 관리를 지칭함.

수미산(須彌山)이란 주7)에 기록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과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산으로, 금·은·유리·파리(玻璃)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다. 연회에서 수미산과 같은 가산(假山)을 만들어 잔치하는 모습은 고종32년(1245) 5월 최이가 종실과 채·추에게 베푼 잔치에도 나타나고 있다. 채색비단으로 가산을 만들고 문수(文繡)·채화(綵花)·얼음·작약으로 장식하였다(『고려사절요 제16권』).

고려의 연회 때에 등장하는 수미산을 만든 가산(假山)이, 조선통신사를 위한 대마도의 연회에서 阿架床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름을 조각한 상 2개 위에 금·은·유리·彩花·새(다분 봉황으로 추정됨)·물고기 등으로 장식한 가산(假山)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금·은·유리그릇 위에 餅果類를 아름답게

고여 담았으며, silk로 만든 꽃[床花]을 餅果類에 꽃아

7) 수미산(須彌山): 불교의 世界說에서, 세계의 한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다고 하는 산. 꼭대기에는 帝釋天이 살고 있고 중턱에는 四天王이 살고 있다 하는데, 그 높이는 물위로 8만 由旬(1유순은 400리)이고 물속으로도 8만유순이며 가로의 길이도 이와 같다 함. 금·은·유리(瑠璃)·파리(玻璃)의 四寶로 이루어져, 북쪽은 황금, 동쪽은 白銀, 남쪽은 유리, 서쪽은 파라인데, 달과 해가 그 주위를 회전하여 寶光을 反映시켜 사방의 虛空을 물들이고 있다함. 수미산 둘레에는 七金山이 이것을 위요(圍繞)하고, 수미산과 칠금산 사이에 七海가 있으며, 칠금산 밖에는 함해(鹹海)가 둘러 있고, 함해건너에 鐵圍山이 둘러있어, 수미세계의 외곽을 이룬다함. 함해속에 四大州가 있는데, 사대주 남쪽이 인도대륙에 해당된다함. 시습·봉황·계·거북은 불교에서 길상을 상징하는 동물임(金鉉煥, 176).

화려하게 장식한 상차림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阿架床의 看盤은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고려적인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아름답게 장식한 看盤인 阿架床에 아름답고 우아한 고려청자인 물병과 茶器를 사용하여 茶를 올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이 茶道와 결합된 看盤인 阿架床은 조선왕조에서도 看盤(壽宴床用 看盤이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서 연회에 올려져, 대마도에서는 조선통신사 접대 때에 이 상을 채택했던 것이다.

#### IV. 맺는말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에게 제공되었던 접대문화를 통하여 韓·日간의 공통되고 있는 음식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그 교류를 究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가 일본사신을 접대할 때에 제공했던 일상식의 하나인 朝飯·晝點心·夕飯의 상차림은 장(醬)을 제외하고 7器·5器·3器로 차려졌고, 이는 7첩상·5첩상·3첩상으로도 표기되었다. 이 7·5·3의 숫자는 일본의 경우 연회식에서 제공되었는데, 무로마찌[室町, 1338-1573]시대에 완성된 本膳料理인 753膳은 에도[江戶, 1603-1867]시대 때의 조선통신사 연회 시 獻部, 膳部에서 각각 753膳이 채택되었다.

2. 조선왕조에서 일본사신 접대 때에 보여 주는 進饌→進花→頒花→獻壽→頒賜→進茶로 이루어진 茶道와 결합된 연회음식과 의례는, 문헌적 탐색에 의하면, 불교를 국교로 하였던 고려왕조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왕조의 연회음식과 의례는 대략적으로 進茶→進饌→進花→頒花→獻壽→頒賜로 구성되어졌고, 進茶 부분에서는 果盤→茶食→茶의 순으로 배선되었는데 작은 연회에서는 茶食없이 果盤과 茶가 進茶의례를 구성하고 있었다. 고려왕조의 進茶儀禮 때 올려지는 果盤은 油蜜果로서 구성되어 茶와 油蜜果, 茶와 茶食이 set가 되어 올려지는 것이 정도이었으나, 유밀과 대신에 과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고려왕조의 유밀과와 과일로 구성된 果盤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유밀과와 과일뿐만 아니라 茶食·국수·탕·전유아가 과반을 구성하는 찬품으로 되었고, 果盤, 別盤果, 茶啖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茶啖은 茶와 set가 되는 상차림이 아니라 술과 set가 되는 상차림으로 변하였다.

조선통신사 접대에 나타난 일본의 茶道와 결합된 연회음식이 발달한 시대는 安土 桃山(1574-1602)시대로서, 한반도보다 약 600년 늦게 茶道와 결합된 연회가 출현한 셈이 되며, 茶의 배선은 고려왕조와 달리 조선왕조 후기와 같은 맨 뒤로하고 있었다.

3. 조선통신사 향응을 위하여 배선되었던 술잔을 올려놓는 絲花彩雲臺는 조선왕조의 연회 때에 사용하는, 獻壽를 위하여 술잔을 올려 놓는 壽杯床과 성격이 같은 것으로, 조선왕조의 수배상은 원반이나 팔각반 위에 수파련이란 床花를 올려 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왕조의 연회 때에 등장하는 看盤과 味數는, 문헌적 탐색에 의하여 고찰한 결과는 적어도 고려시대 거슬러 올라간다. 看盤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유교적 看盤에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불교적 看盤이다. 전자는 우협상·연상·좌협상·면협상·대선·소선으로 이루어진 大卓의 set 상차림이고 후자는 阿架床이다. 大卓이든 阿架床이든 이 양자는 空間展開 型이었다. 看盤이 존재하는 연회에는 술의 헌수(獻數)에 따라 時系列型으로 배선되는 술안주 상차림인 味數가 있었으며, 조선왕조 말까지 연회에 看盤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간전개형의 간반과 시계열형의 미수로 이루어진 연회는 일본의 경우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인 왕조시대까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차림에서도 조선왕조의 그것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에도[江戶]시대 조선 통신사 접대 때에 올려졌던 看盤은, 조선왕조의 味數에 해당하는 시계열형 부분이 간반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 간반의 발달 역시 安土桃山 시대이다.

5. 연꽃[水波蓮]·홍도화(紅桃花)·월계화(月桂花)·사계화(四季花)·목단화(牡丹花)·국화(菊花)·가자화(茄子花)·유자화(柚子花)·복분자화(福盆子花)·포도화(葡萄花)·시자화(柿子花)·과자화(瓜子花) 등으로 이루어진 조선왕조의 床花에 대한 문헌의 출현은 고려시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왕조에서는 吉禮에 속하는 연회에는 綵棚·풍악·꽃이 하나의 set로서 연회 때에 수반되었다. 吉禮에 속하는 연회 때에 수반되는 채방·풍악·꽃으로 구성된 연회는 그대로 조선왕조에 이어졌다. 일본의 경우 安土桃山時代에 床花가 본격적으로 看盤用 料理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반도보다 약 600년 늦게 상차림에서 床花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조선정부가 일본사신에게 접대하였던 일상식 중의 하나인 早飯에서 올렸던 車食 五果床은 17기의 찬품과 3기의 탕으로 구성된 상차림으로서, 이는 일본정부가 조선통신사에게 접대하였던 17기의 찬품과 3기의 탕으로 구성된 3汁 17菜와 그 구성이 같다.

7. 대마도에서의 연회를 통해서 유추한 조선왕조의 阿架床은 茶道와 결합된 불교식 看盤으로 추정되며, 문헌적으로는 고려왕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8. 일본 정부가 조선통신사에게 접대한 음식 상차림

의 모양이 “우리 나라의 果盤·壽杯床·茶啖·阿架床과 같다”고, 조선통신사들이 기록한 내용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는 보다 조선식의 향응으로 접대하는 것이 최상의 대접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통신사 향응에 배선된 상차림은 일본식에 최대한의 조선식을 가미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백제시대부터 조선왕조시대까지 일본으로의 文化的 전이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조선통신사 접대 상차림을 통하여 조선왕조연회의 모습의 잔재를 유추할 수 있다 하겠다.

### ■ 참고문헌

- 1) 김상보a,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3, No.4, 1998.
- 2) 김상보b,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3, No.4, 1998.
- 3) 김상보c,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3, No.5, 1998.
- 4) 金尙寶d, 『朝鮮王朝宮中儀軌飲食文化』, 修學社, 1995.
- 5) 金尙寶e,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飲食의 實際』, 修學社, 1995.
- 6) 김상보f, 「조선왕조 중기 연시례에 대한 고찰」, 『郷土研究』, 第21輯, 1997.
- 7) 김상보g, 「대전의 종교음식문화」, 『考古와 民俗』, 한남대학교 박물관, 1998.
- 8) 金尙寶h,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的 饗宴」,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vol 19, No. 1, 1994.
- 9) 金尙寶i,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 광문각, 1997.
- 10)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敎保文庫, 1995.
- 1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 12) 黃辰, 『東槎錄』, 1636.
- 13) 慶暹, 『海槎錄』, 1607.
- 14) 姜弘重, 『東槎錄』, 1624.
- 15) 작자미상, 『癸未東槎 日記』, 1643.
- 16) 南龍翼, 『扶桑錄』, 1655.
- 17) 申叔舟, 『海東諸國記』, 1471.
- 18)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 19) 『高麗史節要』
- 20) 『高麗史』, 「禮志」
- 21) 『高麗史』
- 22) 『迎接都監儀軌』, 1609.
- 23) 『世宗實錄』
- 24) 加勝百一, 「飲酒と肴の歴史」, 『世界の食べもの 12』, 朝日新聞社, 1984.
- 25) 堀内信, 『南紀徳川史第十四冊』, 清文堂出版, 1990.
- 26) 柴村敬次郎a, 『安芸蒲刈御馳走一番』, 下蒲刈町, 平成元年.
- 27) 柴村敬次郎b, 『御馳走一番館』, 下蒲刈町, 平成6年.
- 28) 高正晴子a, 「朝鮮通信使の饗應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vol.46, No.11, 1995.
- 29) 高正晴子b, 「朝鮮通信使の饗應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vol.49, No.9, 1998.
- 30) 熊倉功夫a, 「合理的食事文化の發展」, 『世界の食べもの 12』, 朝日新聞社, 1984.
- 31) 熊倉功夫b, 「食事の場と食事作法」, 『世界の食べもの 12』, 朝日新聞社, 1984.
- 32) 諸稿轍次, 『大漢和辭典 第11卷』, 大修館書店, 昭和61年.